

하리수는 남자니까 남자다?

성 전환자인 하리수의 인기가 치솟아 신문이며 TV 아침방송, 쇼프로에 자주 얼굴을 보일 무렵이었다. 웬만한 여자 보다 더 날씬한 몸매와 얼굴, 게다가 그 긴 머리카락으로 헤드뱅잉하며 무대를 장악하고 춤추고 노래할 때는 도무지 그녀가 남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요염하였다. 환하게 웃을 때면 설핏 보이는 잇몸이 싱그러웠고 말할 때의 중저음은 성격도 털털한 여자 같아 편안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잖아”

그 즈음 만난 한 남자 후배는 “개? 개 남자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남자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는 듯 그의 정체를 못 박아 버렸다. 그의 확고부동한 말투와 표정 앞에서 “남자? 여자일 수도 있지. 무엇보다도 그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잖아.” 하는 나의 반론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 앉은 후배의 상상력의 빈곤이 한없이 측은했다. 이제는 호적상으로도 완벽하게 여자가 된 그녀지만 후배는 지금도 아니 영원히 여성으로서의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리라.

해묵은 질문이지만 왜 세상에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밖에 없는 걸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만 올바른 것인가. 타고난 성이 곧 그의 생애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메리카의 인디언 버다취족은 살고자하는 성(젠더)의 선택이 자유롭다던데 우리도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하면 안되나.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의 투옥도 그를 짝사랑하는 어느 정치지도자의 음모라는 견해도 있던데……

언젠가 동성애는 태아기의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영향 때문이라는 글을 읽은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가 이성애의 원인에 대해 애써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조차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이성애에 대해 소수일 뿐 언제 어디서나 이성애와 함께 있어왔던 성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도 여고시절 같은 반 친구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하얀 피부에 하얀 칼라가 풀 먹인 듯 반듯하던, 성(姓)도 백씨인 그 애는 ‘지와 사랑’이나 ‘데미안’을 늘 옆에 끼고 다녔다. 그 아이는 유난히 키가 큰 애들과 무리지어 다니곤 했는데 그래선지 다른 아이들 주위에 폭 싸인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친구로 인정한 그들의 중심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도 막 헤르만 헤세에 빠져 들 무렵이라 그 애와 얘기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던가. 그 애와 짝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해 했던가. 이야기

를 나눌 때면 가슴이 뛰고 한 책상에서 매일 만나면 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니 하이네의, 사랑을 하면 그 갈망에 죽고 마는 아스라니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프락사스니……오, 그때의 찬란한 열정과 치기에 가득찬 문장들이여!

그 애와 가까워지고 나서도 그 애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하면 과장되이 외로웠던 기억들.

그때의 내 감정이 동성애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학년이 바뀌고 졸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지금은 그저 소녀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성애 우월주의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

대부분의 동성애자가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적체성을 인식하고 또래 친구들이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반면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이성보다는 동성의 친구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혼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된다고 한다.

성교육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학교, 가정환경에서 동성애자들은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이 동성애 성적체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애우월주의나 이성애적 가정에서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커밍아웃이란 너무도 힘든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성애자의 편견 이데올로기에서 동성애자들은 상당한 억압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성애자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욕망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모른 채 하지 않았나 싶다. 나 자신도 동성애자 하면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왠지 곤혹스럽고 꺼려지거나 호기심의 대상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날 후배의 단

호한 편견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얼마 전 일 때문에 찾아간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에서 커밍아웃으로 유명해진 한 연예인을 만났다. 그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옹호해주는 사회, 소수자도 당당하게 행복해질 권리를 위해 특유의 솔직함과 재치로 생기발랄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마치고 나와 내 앞 자리에 앉더니 툭툭 눈물을 떨구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장애인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뇌성마비 일급 장애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주위의 무시와 가족의 포기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제는 늙어서 자신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는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마지막으로 장애를 하나의 개성으로 보아달라는 대목에서 자신과 같은 소수자의 처지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방송 진행 중에 꼭 참았노라고 가만히 눈물을 흘렸다. 짙은 쌍꺼풀 아래 굵은 눈물을 흘리는 그의 손은 유난히 가느다랗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성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는 심리적 피해자이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갖는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해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의 장갑이 스르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강신애

61년 경기도 강화 출생
96년 '오래된 서랍' 등으로 문학사상 신인상
시집 '서랍이 있는 두 겹의 방'(창비)